

- **주요 뉴스:** 미국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1년 만에 최고치, 인플레이션 압력의 확산을 시사
 - 미국 대통령, 인플레이션의 반전이 최우선, 에너지 가격 상승 억제에 주력
 -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, 금리인상 경로 변경은 시기상조
 - 중국 10월 생산자물가, 전년동월비 13.5% 올라 26년 만에 최고 수준
-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은 기록적인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주가 하락[-0.8%], 달러화 강세[+1.0%], 금리 상승[+11bp]
 - **주가:** 미국 S&P500 지수는 고물가 지속 우려와 기술주 약세 등이 배경
 유로 Stoxx600 지수는 양호한 기업 실적 등으로 0.2% 상승
 - **환율:** 달러화지수는 통화긴축 강화 가능성 등으로 2020년 7월 이후 최고치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.0%, 0.9% 하락
 - **금리:**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조기 금리 인상 관측 등이 반영
 독일은 미국 채권시장의 영향 등으로 5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86.5원, +4.5원) 0.4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11/10일	11/9일	전일대비			11/10일	11/9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646.7	4,685.3	-0.82%	국채 금리 10y	미국	1.55%	1.44%	11bp
	유럽	483.76	482.71	0.22%		독일	-0.25%	-0.30%	5bp
	중국	3,492.5	3,507.0	-0.41%	CDS 5y	한국	20bp	20bp	0bp
	일본	29,107	29,285	-0.61%		중국	53bp	56bp	-3bp
	한국	2,930.2	2,962.5	-1.09%	위험 지표	EMBI+	-	373	-
환율	달러지수	94.90	93.96	1.00%		VIX	18.73	17.78	5.34%
	유로화	1.1479	1.1593	-0.98%		WTI유	81.34	84.15	-3.34%
	엔화	113.91	112.87	-0.91%	원자재	구리	429.6	437.3	-1.77%
	위안화	6.3888	6.3928	0.06%		금	1,849.6	1,831.9	0.97%
	원화	1,180.9	1,177.2	-0.31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- **미국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, 31년 만에 최고치. 인플레이션 압력의 확산을 시사**
 - 노동부에 따르면, 같은 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6.2% 올라 1990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. 공급 차질과 양호한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원인. 전월 대비로는 0.9% 상승. 근원 소비자물가의 전년동월비, 전월비 상승률은 각각 4.6%, 0.6%
 - 항목별로는 휘발유와 식료품 가격 상승이 컸으며, 중고차 및 신차 가격, 임대료 등도 상승세 지속. 이번 발표 이후 연준의 주장대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확대될 전망
 - Capital Economics의 Andrew Hunter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가 증가하고 있으며, 최근의 고물가 상황이 연준의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- **미국 대통령, 인플레이션의 반전이 최우선. 에너지 가격 상승 억제에 주력**
 -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. 또한 시장에서의 어떠한 시세 조작 혐의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
- **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, 금리인상 경로 변경은 시기상조**
 - 데일리 총재는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,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.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, 이는 공급 차질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. 코로나 19의 영향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발언
- **미국 11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26.7만건으로 2020년 3월 이후 최저**
 - 노동부에 따르면, 해당 수치는 6주 연속 감소하면서 코로나 19 이전 수준에 근접. High Frequency Economics의 Rubeela Farooqi는 기업의 필요 인력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, 이는 향후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
- **골드만 삭스,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는 것이 2022년 투자의 핵심**
 - 인플레이션 관련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. 통화긴축에 좀 더 적극적인 국가 혹은 원유 수출국의 통화를 매입해야 한다고 권고

■ 독일 정부 경제자문위원회, 금년 성장률 전망치(3.1%→2.7%)를 하향 조정

- 공급 차질과 인플레이션 압력 등의 요인이 금년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전망. 다만 2022년 전망치는 상향(4.0%→4.6%)

■ 중국 10월 생산자물가, 전년동월비 13.5% 올라 26년 만에 최고 수준

- 국가통계국에 따르면, 이번 결과는 시장 예상치(12.4%) 상회. 석탄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기인. 한편 같은 달 소비자물가도 전년동월비 1.5% 올라 전월(0.7%) 및 예상치(1.4%)를 모두 상회
- Pinpoint 자산운용의 Zhiwei Zhang은 생산자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,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.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가 확인되면서, 당국은 경기부양책 시행에 좀 더 신중할 수 있다고 평가

■ 중국 10월 신규 위안화대출, 8262억위안으로 전월(1조6600억위안) 대비 급감

- 인민은행, 이번 결과는 예상치(8000억위안)를 소폭 상회. 시장에서는 최근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인민은행이 향후 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. 이에 일부에서는 위안화대출이 10월에 저점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

■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, 부동산세 입법화를 추진할 필요

- 국무원의 발전연구센터(DRC)는 부동산세 입법화를 통해 투기 목적의 주택 매입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. 정부는 일부 지역에 시험적으로 부동산세를 도입할 예정

■ 미국과 중국,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

- 성명서에 따르면, 양국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인식하고 있으며, 향후 10년 간 정책과 규제, 환경 기준 등의 영역에서 협력할 방침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1/10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9월 도매재고(전월비): 1.4%, 8월(1.3%), 예상치(1.0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1/11 현지시각 기준)

- 영국 3/4분기 성장률(속보치), 9월 산업생산, 일본 10월 생산자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의 인플레이션, 연말까지 심화되고 내년 1/4분기부터 완화를 예상 - WSI

(Brace for Even More Inflation)

- 연준 및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. 이는 공급 병목, 반도체 및 노동공급 부족 등의 문제들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
- 하지만, 고물가 지속이 소비자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장기간 강화하고, 팬데믹 기간 동안 조기 은퇴자 증가로 노동공급 개선도 어려울 가능성. 아울러 공급 병목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11~12월 연말 쇼핑시즌 시작은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소지
- 이에 소비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고, 공급망 혼란 해소가 기대되는 내년 1/4분기부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

■ 미국의 임금상승, 경제성장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 - 블룸버그

(Wages Are Heading Up, But They're Not Pushing Inflation)

- 미국 노동자들에게 최근의 임금상승은 긍정적이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. 그러나 임금상승은 가계의 구매력 증대와 소비 촉진을 유발. 반면 임금상승률은 1991년 이후 둔화되고 있으며, 이에 소비지출 여력도 감소
- 최근 경기부양책이 점진적으로 종료되고 가계저축도 향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,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지출 여력 확대를 위한 임금상승이 필요. 오히려 디스인플레이션 혹은 연준 목표치 이하의 물가가 더 큰 문제

■ 중국의 부동산·은행시스템 고령화 문제, 1980년대 일본과 유사 - 블룸버그

(China Looks a Lot Like Japan Did in the 1980s)

■ 미국 기업의 인플레이션 대응, 기술 투자 확대가 해법 - Financial Times

(Getting inflationary investing back on track)

■ 3조달러 가치의 암호화폐 시장, 잠재력 대비 위험은 큰 편 - 블룸버그

(Is Crypto Really Worth \$3 Trillion? I Ran the Numbers.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